

도와주세요

급성골수백혈병 노찬호 씨



"가장 부러운 건 '건강한 젊음'이에요."

25세 노찬호씨(사진). '건강'이 세상에서 가장 부럽다며 힘없이 웃는다. 이제 환자복에 길들여진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춰질 때면 한숨이 나온다.

찬호씨는 지난해 2월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11월, 예상보다 빨리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건강해졌으리라는 기대와 달리 뇌와 골수에 병이 재발했다. 거기다 중앙까지 생겼다.

찬호씨의 병에 가족들도 가슴 아프다. 상반신 지체장애를 가진 아버지는 특히 찬호씨의 병원비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 가슴을 친다.

3000만원의 빚까지 얻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찬호씨는 아직 치료를 받고 있다.

"빨리 나아 한 사람의 건강한 청년이 되어 아지요." (02)734-8050 김강진 기자

남亞 지진해일 잊으셨나요

'아난다 장학재단' 월 1만5000원 후원금 접수
매달 스리랑카 청소년 250명에 각 1만여원씩 전달

지난해 12월 스리랑카를 덮친 지진해일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지나간 사건'이 되어 버린 남아시아 지진해일. 그러나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피해지역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보인다. 국내 스리랑카 노동자들의 '아버지' 와치짜라 스님(안산 마하보디사 주지)이 운영하는 '아난다 장학재단'의 문을 두드려보자. 스리랑카 지진해일 피해지역 학생들에게 학용품 구입에 필요한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다.

와치짜라 스님은 올 4월부터 피해지역인 하카도와 지역 초등-고등학생 250명에게 각각 매달 초 9000원~1만 2000원을 전달하고 있다. 우리에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곳의 학생들에게는 다달이 기다려지는 '자비 손길'이다.

스님이 스리랑카 '새싹' 들을 돌보기로 마음먹은 것은 지진해일 피해 직후 한국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스님에게 맡긴 올 1월부터였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찜질돈을 꺼내 만든 성금 1200만원은 스리랑카 노동자들의 동포애고 자존심이었다.

이 성금으로 만든 것이 '아난다 장학재단'. 와치짜라 스님은 "가장 뜻 깊은 일이 피해지역 아이들을 길러내는 일이라

생각했고 아이들에게 부처님의 10제자 중 한명인 아난다와 같은 지혜를 전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재단의 의미를 설명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마음과 정성만으로 재단을 이끌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간 이 사업을 크게 홍보하지 않아 꾸준한 후원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대로는 아이들에게 제때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스리랑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월 1만 5천원의 후원금을 내고 마하보디사 법당에 있는 '자비의 등불'을 켜면 된다. 이렇게 '등불 가족'이 되면 스리랑카 아이들에게 후원자의 이름으로, 또는 익명으로 장학금이 전달된다. 등불 하나가 마하보디사 법당을 밝히고, 아이들의 손에 학용품을 쥐어줄 수 있는 것이다.

와치짜라 스님은 "지진해일 피해 지역 사람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도록 한국 불자들의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cafe.daum.net/mahabodhis, (041)402-8300
후원계좌 : 국민은행 995701-01-115477(예금주:와치짜라-랑카불자협회)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nia.com

"민수 머리랑 스님 머리랑 똑같네"



"민수 머리랑 스님 머리랑 똑 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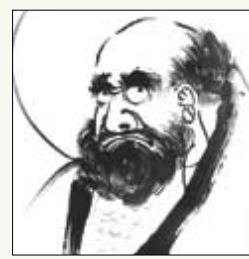
8월 29일, 병원 입원 4개월째를 맞은 민수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달마도를 그려 민수를 돕겠다고 나선 일허 스님(밀양 영천암 주지)이 민수의 병실을 찾아 민수와 민수 아버지의 투병에 힘을 보탤다. 민수는 일허 스님의 방문이 영 낮은 모양이다. 독한 치료와 때문에 빠져 버린 자신의 민중 머리와 닮아있는 스님의 삭발 머

리에 자꾸 눈길이 간다.

민수는 지금 4차 약물치료를 완료하고 골수 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 또 다시 5차 약물 치료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백혈구 수치가 0까지 떨어지는 위기도 있었지만 다행히 민수는 감염도, 고열도 없이 잘 견뎌왔다. 의사와 간호사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잘 견디고 있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일허 스님은 "2-3년 전 나도 심근경색으로 대수술을 받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며 "민수도 틀림없이 병을 털고 일어날 것"이라며 격려했다. 일허 스님의 정성이 담긴 달마 그림 속에 민수의 밝고 건강한 웃음을 발원하는 마음이 그득 담겨 있다. hompy.buddhania.com/help minsu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nia.com



일허 스님 달마도 구입안내

민수등기에 일허 스님이 달마도 100장을 보시하셨습니다. 달마도(사진)는 35×45(cm)규격이며, 작품 가격은 정액 5만원입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민수의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달마도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39 영천암 (055)356-2040, 일허 스님 011-867-4747 계좌번호: 006001-04-095472 국민은행, 예금주: 김강진(현대불교).

The Pride www.ggu.ac.kr

Pride 01 정예교육 / 개인지도 방식 교육

Pride 02 신입생 전원 전액 장학금 지급

Pride 03 해외연수 및 교환학생 장학지원

Pride 04 초현대식 기숙사 무료제공

Pride 05 외국인과 24시간 생활하는 글로벌 캠퍼스

금강대학교 2006학년도 수시 2모집안내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모집 단위	전형 유형	모집인원
불교/복지학부 (불교학전공)	종교대체 추천자	10
	사회봉사자	11
통상/행정학부 (통상통역학전공)	선·호봉자	9
	국제화 리더십 우수자	3
영어·일어·중어 (행정학전공)	학교장 추천자	8
	외국인 특기자	8
(행정학전공)	전년도 우수 우수자	2
	계	51

전형일정

- 입학원서 교부: 2005. 8. 16(화) ~ 9. 15(목)
- 입학원서 접수: 2005. 9. 12(월) ~ 9. 15(목) 09:00~17:00 (인터넷 원서접수 포함)
- 면접고사: 2005. 9. 23(금) 10:00예정
- 합격자 발표: 2005. 9. 27(화) 10:00예정
- 합격자 등록: 2005. 12. 22(금) ~ 12. 23(금) (은행마감 시간 내)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요건요청 항목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구술면접고사
- 입학원서 접수
 - 본 대학교 (필요시 지정 접수처 추가 설치), 우편,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 인터넷접수 사이트 http://www.uway.com, http://www.applybank.com
- 입학문의

- 금강대학교 교무과 ☎ (041) 731-3050 / FAX (041) 731-3049
- 주소: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14-9번지
- 홈페이지 주소: http://www.geumgang.ac.kr



www.ggu.ac.kr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14-9
TEL 041)731-3114 FAX 041)731-3049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자양종합사회복지관 토요일식당

국수 한 사발에 사랑 '듬뿍'

8월 27일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서울 자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영심) 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6인용 탁자가 여덟 개 남짓 놓여 있는 작은 공간은 어느새 어르신들의 이야기 소리로 가득하다. 11시가 되자, 테이블은 이미 꽉 찼고 바깥으로 이어진 줄은 길어진다.

어르신들만 아침부터 복지관을 찾는 것은 아니다. 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한 끼 식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미 10여명. 부엌은 일하는 손길로 분주하다. 이날의 메뉴는 국수다. 한 그릇을 식이라 비교적 간단할 것 같지만 재료준비부터 시작 하려니 바쁘다. 그러나 오랜 시간 봉사 했기 때문인지 행동은 여유 있다.

그런데, 봉사도 좋지만 가족들과 함께 토요일 아침을 맞고 싶은 생각은 없었을까. "글쎄요, 그냥 나오는 게 습관이 됐는지 집에서 노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4년 넘게 자양복지관에서 급식 봉사를 하고 있는 황숙희(53)보살.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고, 이것저것 챙겨주기가 좋아하는 성격이라 어르신들에게도 '국물 더 드릴까요, 국수 더 드실래요' 여쭙보기 바쁘다. "어르신들만 여기서 재밌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재밌어요. 사람도 사귀고 얼마나 좋아요." 황보살을 거들던 송영의(45)보살은 즐겁게 살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며 웃을 짓는다. 그러나 봉사자들도 피곤할 때가 있다. 이런 피로를 이겨내는 특효약은 어르신들의 칭찬 한마디. "국수가 아주 맛있어요. 시장에서 파는 국수는 비할 바가 아니야."

한 어르신의 칭찬에 신순이(54)보살은 신이 났다. 아들과 함께 봉사하고 있는 신보살은 품품하게 어르신들을 챙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150인분 음식이다 보니 자칫 잘못 하면 정성이 부족하기 쉬운데 신보살 같이 품품한 이가 챙기기에 항상 맛이 변하지 않는 것



"국수 맛있어요" 어르신들의 한 마디면 늘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양종합사회복지관 토요일 급식 봉사자들. 사진은 8월 27일 봉사 모습.

이다. 자양복지관의 토요일 메뉴가 늘 '국수'인 것은 아니다. 어느 팬 수제비, 또 다른 때는 카레를 내놓는다. 복지관에서 재료를 후원받으면 거기서 어떻게 더 다양하고 맛있는 것을 내놓을 수 있을까, 보살들은 그것이 항상 고민이다. "우리가 크게 도와드리지는 못해도 정성들여 대접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서 스스로도 신난답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가족여행 후원해 주세요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 조부모-손자 세대 가족을 대상으로 제주도 여행을 기획하고 있다.

급식 봉사팀은 "우리도 조그만 정성은 보태려고 하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한 번도 가족 여행을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오붓한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봉사자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02)458-1664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 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이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 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범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 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범죄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범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

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자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한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이기 나눔성금 모금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유류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

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중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중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지원 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봉사 및 우리 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 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적인 거 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도 제보해주시고.